



우리나라의 에너지절감펀드는 어디에?



현재 세계 각국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각종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은 석유제품의 판매에 작은 세금을 부과하여 매년 4천만~5천만달러를 지원하는 에너지절감펀드를 만들었다. 물론 경제위기로 인하여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이 펀드는 태국에서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효율파이낸싱과 교부금 지원제도가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많이 탄생했다.

현재 북미지역에서는 ESCO들이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금, 기술, 설치 및 성과배분에 대해 'One-stop'으로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의해 개발되고 만들어진 비용효과적인 효율도구들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수행된 1,400여 ESCO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거의 3/4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학교와 병원, 공공기관 및 시설들에 적용됐다. 이 ESCO사업의 비용은 적게는 50만 달러에서 많게는 2백만 달러까지였고 에너지절감효과는 25~45%에 달했다. 미국의 ESCO시장 규모는 2000년 현재 약 20억 달러로 보고되고 있으며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브리질 역시 많은 ESCO가 활동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ESCO사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출발전상에 서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동유럽 국가의 민간 ESCO들을 위해 차입이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지구환경기금(GEF) 역시 중국과 헝가리에서 ESCO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ESCO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래 수많은 사업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의 ESCO사업 성공기는 해외 에너지 교과서에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지원 ESCO자금도 비약적으로 매년 상승하여 지난해는 약 1,800여억원에 달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지원금만 바라보고 170여 ESCO들이 사업을 펼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은 것이 현실이다.

ESCO들이 매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부자금 이외에 정부자금처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자금이 절실한 때이다. 에너지효율프로젝트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건대 이 자금은 '공공펀드'의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일종의 기금과 민간자금의 결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에너지원단위의 개선이나 해외에너지자원의 확보, 신재생에너지의 적극 보급과 같은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만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가 없다. 만물이 생동한다는 새봄을 맞아 'ESCO펀드' 혹은 '에너지절감펀드'와 같은 자금이 경제논리에 의한 순수 민간펀드는 물론이고 공공성 연금으로부터도 ESCO에 꽃 피기를 희망해본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